

## “이어도사나”에 건강을 싣고 오늘도 물질을 나선다

- 건협 제주지부, 남제주군 잠수부 건강검진 실시 -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은 삼다도 제주. 요즈음이야 지구촌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덕택으로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지

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꼽았었다.

그리고 그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라산 백록담의 운치와 함께, 바람부는 바닷가의 낭만을 기억할 것이다. 제주 해녀들이 금방 물질을 해 잡아 올린 전복·소라를 비롯한 파득거리는 바닷생선회의 감칠 맛...

제주를 찾는 손님을 위해, 또 자신의 생활을 위해 생활력 강하기로 소문난 제주 해녀들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어도 사나를 부르면서.

이런 잠수부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건강진단이 남제주군에서 있었다.

남제주군(군수·강태훈)은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6. 잠수부 특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무료검진을 통해



잠수부의 건강을 관리해 줌으로써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의 호응도 컸고 주민의 건강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이번 검진사업을 주도했던 강태훈 남제주군수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특히, 강 군수의 공약사업을 실현했다는 데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군내 55세 이상 잠수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군비 4천여만 원을 들여 실시한 이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의뢰되어 현지 출장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건협 제주지부는 관내 34개 어촌을 직접 방문하여, 1차로 간기능·당뇨·귀질환을 비롯한 1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초음파·위장조영촬영·유방암 등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잠수부의 60.8% 정도가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은 관절염·난청·시력장애·당뇨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간질환·고지혈증·고혈압 등의 성인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수중작업 중의 압력 차에 의한 귀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받지 않는



▲ 강태훈 남제주군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중이염·난청 등 귀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고 건협 제주지부는 밝혔다.

한편, 그 동안 건강검진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잠수부들은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남제주군의 강태훈 군수를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현지까지 출장하여 검진을 해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감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제주군은 이와 같은 특별건강진단 외에도, 잠수부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가져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최종 진단된 잠수부들은 남제주군의 관심 속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나서고 있다. 이어도 사나에 건강과 흥을 싣고...

“이어싸-이어싸-이어싸-/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우리의 배는 잘도 간다” 77